



15일 중국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에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주재로 6차회담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이징=연합뉴스

중유 5만t, 사찰단 입북 때 제공

북한의 핵폐기 이행에 대한 상응조치를 협의하는 6차회담 에너지·경제협력 실무그룹 1차 회의가 15일 오후 베이징(北京)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열렸다.

6차회담 에너지·경제협력 실무그룹 1차회의 美 '소형 발전기 지원 제시'...日 태도변화 주목

현지 소식통은 "한국측은 중유 5만t을 선박 3대에 나눠 한꺼번에 배송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며 "배송 시기는 핵시설 폐쇄, 봉인 상황을 감시, 검증하는 IAEA 사찰단의 북한 입국 시점에 비슷하게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AEA 사찰단 북귀, 대북 중유 5만t 제공, IAEA 사찰단 입회 하의 핵시설 폐쇄, 폐쇄 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봉인 조치 등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북귀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다른 참가국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중유 5만t 외에 불능화 시점까지 우리가 추가로 부담할 중유 15만t(일본 동참시), 또는 20만t(일본 동참 안할시) 상당의 지원에 대한 대강의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에 초기 단계에 제공할 중유 5만t 이외의 추가 지원 물량도 중유로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6차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북한의 김명길 주유엔 대표부 정무공사가 북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초기단계 조치' 이행시 북한에 제공될 중유 5만t 지원의 이행시기 및 절차, 그리고 향후 불능화 단계까지 북한에 제공할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과 관련해 북한의 에너지 상황과 필요한 에너지 종류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초기조치 이행은 연병 5 MW 원자로 등 핵시설 가동 중단, 특히 중유 5만t 지원에 나설 한국측

日 보수언론 '혼다 의원 죽이기'

군대 위안부 사죄 촉구 결의안 폄하도

일본의 우익 대변자로 불리는 산케이신문 등 일부 언론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미국 하원의 군대위안부 결의안을 대표 제출한 마이클 혼다(민주당·캘리포니아) 의원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언론은 일본계 3세인 혼다 의원의 결의안 제출 배경으로 캘리포니아 선거구에 아시아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 결의안 자체를 폄하한 데 이어, 중국계 반일단체 등으로부터 지역의 현금도 받았다고 폭로하는 등 순수성을 의심시키려 애쓰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5일자 1면 특으로 게재한 워싱턴발 기사에서 혼다 의원이 그동안의 선거에서 중국계로 부터 현금 의존도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도쿄=연합뉴스

"美 은행, BDA와의 모든 거래 금지"

미 재무부 조사 종결

미 재무부는 14일 미 금융기관들에 대해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와의 직, 간접적인 모든 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BDA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마카오 당국은 그동안 BDA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에 되돌려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워싱턴=연합뉴스

응징보답당 차관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18개월간 진행해온 BDA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날 회견에서 "BDA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눈감아 주려고 한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BDA는 수수료를 바라고 북한 고객들의 금융거래에 대해 감시나 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이어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BDA에 계좌를 유지할 수 없으며 BDA는 직, 간접적으로 미 금융체계의 접근이 금지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30일 이후 발효된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수교前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희망"

김명길 유엔 北공사 "라이스 방북시 北美정상회담 논의"

북한이 "북미간 정식 수교 이전에 외교적 일단계로 연락사무소 개설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이 만약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면 외교적 절차를 밟아 미국과 국교수립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북미간 수교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북한이 유엔 대표부 김명길 공사는 베이징을 출발하기 전 12일 이창주 국제한민족재단 상임의장과 전화 통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18개월 동안 끌어온 BDA 조사를 마무리짓고 마카오 당국과 중국 금융당국에 위임한 것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중국 최고의 국정지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0기 전국위원회(전국정협) 5차회의가 12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5일 공식 폐막했다. '조화사회 건설에 마음을 합치자'는 내용의 피켓을 든 안내원들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정협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중 전 국정협 폐막

中 첫 달 궤도위성 '창어1호' 9월 발사

중국 최초의 달궤도 선회 탐사 위성 '창어(嫦娥) 1호'가 오는 9월 발사될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이 관계 당국자 및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15일 보도했다.

장원환(張雲川) 국방과학공업 기술위원회 주임은 최근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창어 1호' 발사를 위한 각종 준비작업을 원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발사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발사시간 선택은 조건이 까다롭다고 밝혔다.

장 주임은 그중 하나로 '창어 1호'가 지구-달-태양 사이에서 최상의 각도를 찾아 비교적 순조롭게 달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연합뉴스

김 공사는 "현재 공화국의 우선 과제는 조미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BDA 자금 동결 해제를 비롯, 2·13 베이징 핵타결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고, 미국의 전향적이고 우호적인 대북 외교 접근법을 감안할 때 많은 시간과 난관이 우려되는 북미간 정식 수교보다 정상적 외교적 절차를 밟아나가는게 북미관계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공사는 특히 "전체 자금 동결 해제가 전제된다면 단계적 해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새들도 짝짓기때 '바람잡이' 동원

새들도 짝짓기 상대를 유혹할 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바람잡이'를 동원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14일 보도했다. 또 이렇게 조역을 맡은 녀석은 나중에 서열 상승의 보상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에밀리 듀벌 박사 등 연구진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파나마의 보카섬에 사는 '창꼬리 매너킨'(연작류의 작은 새) 450여 마리의 다리에 인식표를 부착하고 이들의 짝짓기 행태를 관찰한 결과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고 아메리칸 내추럴리스트 최신호에 발표했다.

검은 바탕에 화려한 빨강, 광택의 깃털을 자랑하는 매너킨 수컷은 두 마리가 함께 땀땀기와 목기 비행을 동반한 화려한 춤으로 암컷을 유혹하지만 암컷이 우두머리 수컷의 구애에 넘어가면 조역을 맡았던 수컷은 미련 없이 현장을 떠난다. /연합뉴스

국채리스크

국채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국채리스크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채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국채리스크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